

# 지혜의 말씀

불기 2569년 3월 / 통권 528호

대한불교조계종 신해대광사



## 법구경 (法句經)

마음이 그들에 앞서가고  
마음이 그들의 주인이며  
마음에 의해서 모든 행위는 지어진다.  
만일 어떤 사람이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에게는 반드시 행복이 뒤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물체를 떠나지 않듯이.

心爲法本 心尊心使 심위법본 심존심사  
中心念善 卽言卽行 중심렴선 즉언즉행  
福樂自追 如影隨形 복락자추 여영수형

- 법구경 계송 2

## 목 차

### 시와 불교의 만남 · 2

### 생각의 터 · 4

마음에 점을 찍다 / 운성스님

###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경전공부》 · 8

『법구경』 해설 - 2 / 자경스님

### 설담장학회 · 12

### 대광사 3월 법회 및 행사 · 14

### 알림마당 · 15

고맙습니다

설담장학회 안내

용왕제 안내

법당 연등점수 안내

신도님들의 협조바랍니다

제23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안내



표지그림/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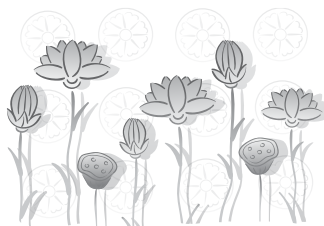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http://www.daegwangsa.or.kr)

• 발행인·편집장 / 자경스님

• 주 간 / 선헌심

• 편집인쇄 / 디자인스프링



선가의 이야기 中

## 마음에 점을 찍다 (點心)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덕산 선감(德山宣鑑, 782-865) 선사는 당나라 검남(劍南) 출신이며 성은 주(周)씨다. 어린 나이에 출가해 깊이 율장과 교학을 연구 통달하여 항상 금강경을 강설했으므로 주금강이라 했다.

남쪽에 ‘마음 하나 깨치면 부처’라고 주장하는 선불교가 성행하여 교학을 무시한다는 말을 듣고 그들 중 최고 선사인 용담을 굴복시켜 불교를 바로 세워야 겠다는 다짐으로 애독 강설하던 금강경을 짊어지고 길을 나섰다.

길 떠난 여러 날에 호남성 풍양의 풍주 고을에 이르러 마침



점심때라 떡 파는 노파를 만나 허기나 면하고 가려고 그 앞에 앉았다.

노파 눈썹미가 이미 보통이 아닌지라 덕산에게 묻는다.

“결망에 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노인이 떡이나 팔 일지 싶어서 시큰둥하게

“금강경이요.”

“금강경에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 고 했는데 지금 스님께서는 어디다 점을 찍으려 하시는지요? 만약 물음에 답을 주시면 떡을 그냥 드리지만 그렇지 못하면 떡을 팔 수 없습니다.”

점심(點心)이란 말은 우리가 한문을 그대로 쓰긴 하지만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표현이다. 간단한 점심 식사를 이르는 말이다.

‘마음에 점을 지나간 마음에 찍을 것인가? 현재의 마음에 찍을 것인가? 미래의 마음에 찍을 것인가?’ 경에서는 ‘과거심도 현재심도 미래심도 잡을 수 없다.’ 했는데 어디다 점 찍는단 말인가? 논리로 답할 수 있는 물음이 이미 아닌 것이다.



시장에서 떡 팔고 앉은 할머니 입에서 이런 엄청난 말이 나오리라고 생각지 못했던 덕산은 아무 대답도 못 하고 망신스럽게 서 있을 뿐이었다.

할머니가 조용히 이끄기를,

“머지않은 용담에 승선선사가 계시니 가서 가르침을 받으시지요.”

등에 보물같이 짊어지고 다니던 금강경을 단박에 불살라 버리고 허겁지겁 용담으로 승신을 찾아갔다.

그래도 아직 우쭐하는 마음 다 비우지 못한 그는 선사에게 날카로운 한마디 수작을 걸어본다.

“여러날을 힘들여 소문듣고 용담을 찾아왔더니 연못도 없고 용도 없지 않는가?”

아직도 학승의 옷을 벗어던지지 못한 초입 선자의 어설픈 일 같이지만 미래의 큰 선승이 될 인물임을 알아본 용담 승신(龍潭崇信, 782~865)께서 자상하게 이르신다.

“자네가 이미 용담에 서 있다네!”

덕산은 더 아무말 못하고 넋죽 삼배 올려 스승으로 모시는 예를 드렸다.

다시 저녁이 되어 선사를 찾아가 여러 의심하는 바를 묻고

가르침을 받으며 앉아 있다가 밤이 깊어 잠자리로 돌아가려고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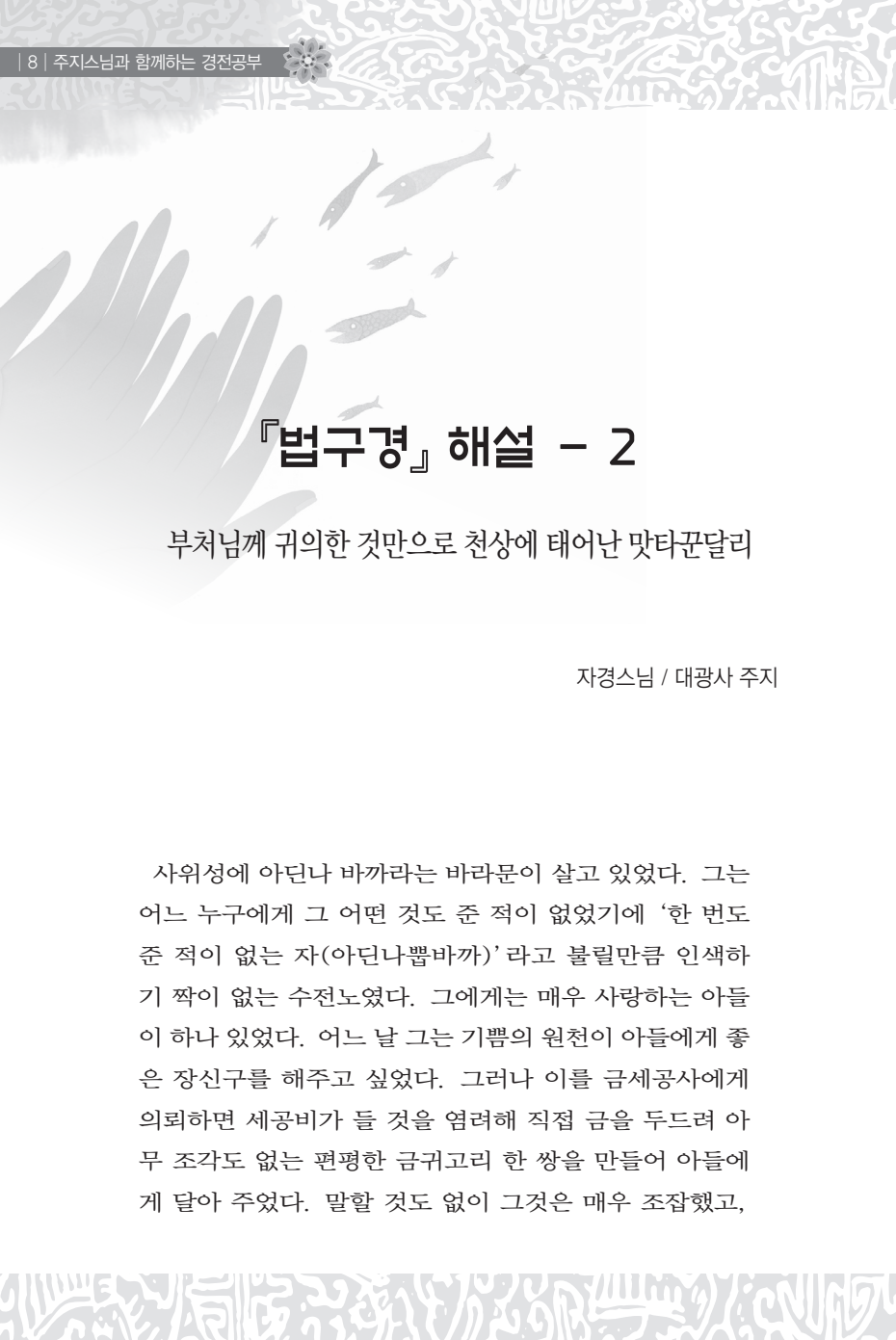
밖이 어두워 나가기가 어렵자 선사께서 기름종이에 불을 붙여주시더니 갑자기 훅~ 붙어 끄는 게 아닌가?

갑자기 깜깜해진 천지에 한 방 얻어맞는 순간이었다. 천지 삼라만상의 이치를 확연 깨달은 덕산이 용담에게 다시 큰절 올리며 한마디 드린다.

“지금 이후로 마음이 부처라 이르신 천하 선사들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덕산 방(방망이), 임제 할(고함)은 선가의 유명한 양대 지도법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뛰어난 지도법이다.

뛰어난 지도법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자신의 공부가 그만큼 철저하고 알뜰 했음을 말하며 무엇에도 막힘없는 통쾌한 지견을 터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법구경』 해설 - 2

부처님께 귀의한 것만으로 천상에 태어난 맛타꾼달리

자경스님 / 대광사 주지

사위성에 아딘나 바까라는 바라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 그 어떤 것도 준 적이 없었기에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자(아딘나뽀바까)’라고 불릴만큼 인색하기 짝이 없는 수전노였다. 그에게는 매우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기쁨의 원천이 아들에게 좋은 장신구를 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이를 금세공사에게 의뢰하면 세공비가 들 것을 염려해 직접 금을 두드려 아무 조각도 없는 편평한 금귀고리 한 쌍을 만들어 아들에게 달아 주었다.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매우 조잡했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그의 아들은 맛타꾼달리, 즉 ‘조잡한 금귀고리를 달고 다니는 아이’로 불리게 됐다.

맛타꾼달리가 열여섯 살이 되던 해 그만 황달에 걸리고 말았다. 아딘나 바까는 아이를 의사에게 데려가 치료하면, 치료비를 지불해야 되고, 그러면 당신의 재산이 축날 것을 염려하여, 의사의 처방은 받지 않고 온갖 민간요법을 다 써 치료하려 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 급기야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야 의사에게 데려갔다.

의사들은 젊은이의 병이 치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을 알고, 자기가 치료하다 죽으면 고스란히 받게 될 비방을 면하고자 갖은 방법으로 치료를 꺼렸다. 바라문은 아들이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고, ‘사람들이 아들의 장례식에 조문을 오면 자연히 우리가 부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들을 집 밖으로 내놓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들을 집 밖의 정자에 눕혀 놓았다.

이즈음 부처님께서는 깊은 대연민삼매(大憐憫三昧)에 들어 계시면서 어느 중생이 지금 가장 불법을 받아들이 인연이 잘 익었는지 관찰하시었다. 그 결과 사위성에 사는 아딘나 바까의 아들인 맛타꾼달리가 죽음을 앞두고 집 밖에 버려져 있음을 아시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그 소년에게 가심으로써 있게 될 앞 일을 다 예견하시고, 제자들을 거느리고 사위성으로 탁발을 나가시는 길에 먼저 맛타리꾼달리가 누워 있는 곳에 가시었다.



맛타리꾼달리는 부처님을 뵈옵고 황망하여 이렇게 사죄  
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어리석은 아버지 때문에 그동안  
부처님을 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청정하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지도 못했고, 또 부처님의 설법을  
듣지도, 그 위대한 진리를 실천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몸은 물론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에도 힘이 듭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마음을 다하여 귀의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밝은 표정으로 “제 마음은 이제 아주 평  
화롭고 고요하게 잘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서는 “맛타리꾼달리야, 너는 그것만으  
로 네가 할 일을 충분히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 부처님께서서는 그 자리를 떠나셨는  
데, 소년 맛타리꾼달리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 비구  
들이 시야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것을 바라보며 오롯하고  
한결같은 믿음을 지닌 채 죽었다. 그는 죽자마자 곧바로,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깨어나 맑은 정신을  
지닌 채 33천의 삭카천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후 맛타리꾼달리가 전생의 아버지를 교화하러 지상에  
내려왔을 때, 그의 아버지 아딘나 바까는 아들이 천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선뜻 믿기지 않았다.

“오, 네가 맛타리꾼달리란 말이나? 그렇지만 아들아,  
나는 네가 생전에 공덕 짓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집에서  
나, 혹은 밖에서나, 많고 적건 간에 비구들에게 공양올리





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또 계를 받아 지니면서 오후에 먹지 않는 것도 보지 못했다. 그렇거늘 다른 어떠한 공덕이 있어 네가 천상에 태어났단 말이나? ”고 물었다.

이에 천인이 된 아들이 대답하였다.

“제가 병이 들어 고통이 심하고 마음은 좌절하여 집 앞 정자에 홀로 누워 있을 때, 부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욕망 없고 의심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뵈었습니다. 부처님의 위없이 높고 거룩하시며 지혜로운 모습을 우러러보면서, 저는 두 손을 모아서 합장하고 부처님께 진심어린 공경을 표했습니다. 이 같은 선업 공덕이 있어서 저는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여래를 믿고 공경한 공덕만으로도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맛타리꾼달리의 말에 아버지 아딘나 바카가 부처님을 위해 공양을 베풀었을 때, 수많은 사위성의 백성들이 몰려왔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대중을 향해 크게 일갈하셨다.

“그대들이여, 사람의 마음은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되느니라. 착한 행동이거나 또는 악한 행동이거나 간에 그 행동에는 언제나 마음이 앞서가는 법이니라.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일으켜 행동한 결과는 그 행동한 사람에게서 결코 분리되지 않고 그를 따르느니라. 그것은 마치 그림자가 물체의 형상을 떠나지 않는 것과도 같으리라.”고 하시며 위(표지)의 계송을 읊으신 것이다.



## 「설담장학회」

대광사에서는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창원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대광사 각 신행단체와 일반 불자님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정성이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과 응원이 될 수 있으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설담장학회에서 '설담(雪潭)'은 회주 운성 큰스님의  
호이며, 설담장학회 통장으로 입금된 모든 금액은  
청소년 장학금으로만 쓰일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설담장학회 계좌번호  
수협 2010-0975-0679





## 대광사 3월 법회 및 행사

◇ 2월 28일 :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3월 2일 : 초하루기도 회향

◇ 3월 14일 : 보름법회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3월 23일 : 용왕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3월 29일 :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 용왕재

■ 일 시 : 2월 23일(일)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동참금 : 3만원

### 법당 연등접수 안내

■ 대웅전 10만원 ■ 관음전 10만원

■ 설법전 7만원 ■ 영가등 5만원





## 대광후원회

(2025.1.17.~2025.2.19.)

|         |         |         |               |
|---------|---------|---------|---------------|
| 황두관 1만원 | 담화연 2만원 | 이우권 3만원 | 배동환변화 5만원     |
| 이순남 1만원 | 변창인 2만원 | 구자민 3만원 | 장세미 10만원      |
| 정진이 1만원 | 이인숙 2만원 | 정창운 3만원 | 박진호 20만원      |
| 송성수 1만원 | 홍승운 2만원 | 공미애 5만원 | 이병정열정영여 20만원  |
| 박미애 1만원 | 정미선 2만원 | 우명희 5만원 | (주)카텍홀딩스 30만원 |
| 선말수 1만원 | 윤숙희 2만원 | 조한분 5만원 |               |

◆ 급식소 후원 계좌 : 농협 355-0545-9595-93 대광사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 지혜의말씀 후원(2025.1.17.~2.19)

김영우 10만원 / 김유나 5만원 / 김이나 5만원 / 김정수 5만원

이정배 2만원 / 송민기 1만원

♥ 설담장학회(2025.1.17.~2.19)

주지스님 10만원 / 제영길 5만원 / 진병천 3만원 / 변지오 2만원 / 구자민 2만원

이순남 1만원 / 이경화 1만원 / 조홍준 1만원 / 이윤정 1만원 / 이유림 1만원

※ 신도님들의 협조바랍니다.

- 가족사항, 주소, 휴대폰번호 등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종무소로 연락바랍니다.



## 진해대광사 반야찬불단 / 시라다도반

###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시라회 다도반 : 매주 목요일
- 반야찬불단 : 매주 금요일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545-9595



### ※ 대광사 수미산약회 회원모집

- 3월 15일(토) 산행
- 경주 함월산 기림사/동참금 5만원
  - 매달 3주 토요일 산행  
(단, 사중 행사가 있을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월회비 5천원 - 문의 및 접수 ☎545-9595

### ※ 경전반 모집

경전반 수업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회주 큰스님께서 법화경 강의를  
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佛紀 2569年 대광사 신도기본교육 및 제23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안내

진흙에서 핀 은은한 연꽃이 세인을 매료시키듯 부처님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가를  
가르치시고 이끄셨습니다.

대광사에서는 올해도 훌륭한 스님과 법사님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을 개강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많이 동참하시어 값진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       | 신도기본교육              | 대광불교대학                                  |
|-------|---------------------|-----------------------------------------|
| 대 상   | 미수계자 및 초심자 누구나      | 신도요계 수계자                                |
| 교육기간  | 2025년 2월 25일~3월 19일 | 2025. 3. 25(화) ~ 12월중<br>(1년 과정 - 2학기제) |
| 수 계 일 | 2025년 3월 22일        |                                         |

- ▶ 교육일시 : 매주 화·수 오전 10시~12시
- ▶ 접수기간 :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중순까지
- ▶ 수 강 료 : 신도기본교육 50,000원(신도증발급, 수계비, 법복 포함)  
불교대학 1학기 200,000원 (교재비, 성지순례비, 법복 포함)  
불교대학 2학기 200,000원 (교재비, 성지순례비 포함)  
총 45만원(학기별 납부가능)  
불대계좌 : 수협 921-61-001749 대광사
- ▶ 신청준비물 : 증명사진 1장, 신청서 작성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 온라인 입금 안내

|                         |           |
|-------------------------|-----------|
| 경남은행 : 518-07-0096440   | 예금주 - 대광사 |
| 수 협 : 921-61-000421     | 예금주 - 대광사 |
| 농 협 : 821145-51-042833  | 예금주 - 대광사 |
|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 예금주 - 대광사 |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